2026 년 1 월 20 일

Macro Snapshot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| Economist 김유미 helloym@kiwoom.com

키움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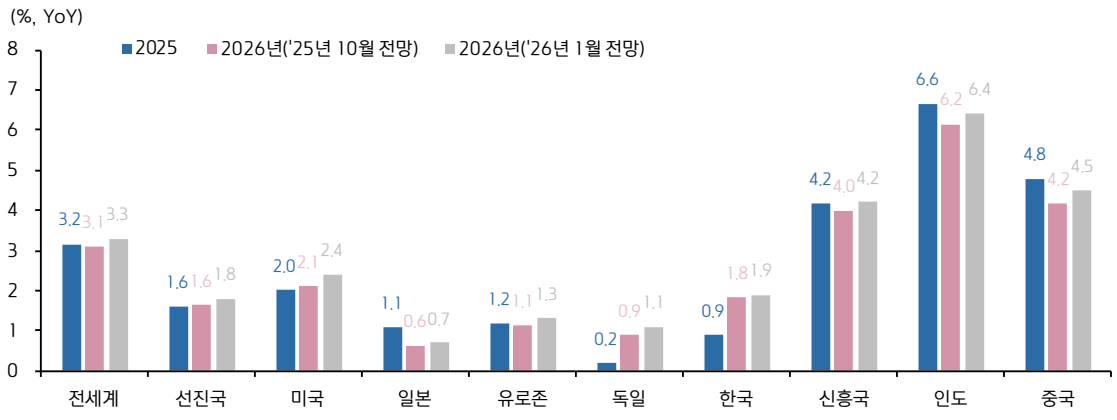
IMF 세계경제전망: 성장률 상향 속 정책·AI 리스크 부각

국제통화기금(IMF)의 세계경제전망이 발표되었다. 이번 전망을 통해 지난 10 월 발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. IMF 는 연간 4 차례(1·4·7·10 월)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, 이 중 1 월과 7 월 전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 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으로 이해하면 된다. 이번 전망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대체로 상향 조정되었다.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존 대비 0.2%p 상향됐으며, 미국과 한국 역시 각각 0.3%p, 0.1%p 상향 조정되었다.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 부양 효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반면, 신흥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 등이 성장률 상향 조정의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.

IMF 는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AI 도입을 통해 중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동반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. 동시에 이러한 요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하방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. 특히 소수의 AI·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, AI 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고 금융 리스크가 전이·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했다.

B2B 중심의 AI 투자 사이클은 올해에도 경기 흐름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이 과정에서 AI 투자 흐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의 소외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, 이를 완충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. 그 결과 재정 확대에 수반되는 정책 리스크에 대해 금융시장은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IMF 수정 경제 전망



자료: IMF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